◉ 성베드로와 성바오로대축일미사

오늘은 가톨릭교회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축일이 함께인 것은 두 분이 같은 날에 순교해서라기보다는 유해를 옮겨 모신 날이 같은 6월 29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명 축일을 맞으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명을 갖는 이유는 그 성인을 본받고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이 모두 싫고 밉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겠지요. 믿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행복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 드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축일을 지내는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모든 신자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분들 이름을 본명으로 삼으며 본받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베드로 사도는 성격상 결점이 많고 배운 것도 없으며 신의도 못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반자인 그를 용서해 주셨으며 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용서와 신뢰에 힘입어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으며,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는 말씀대로 신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1대 교황이 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인물로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열렬한 유다교 신봉자였던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33년경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고 고백하며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다가 67년께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되어 목숨마저 주님께 봉헌하기까지 신약성경의 반 가까이를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을 그리는 '바오로의 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의 일생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사도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초대교회 두 사도의 일생을 바친 선교는 그리스도교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밖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오로 사도는 이민족들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지내면서 그분들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며 과연 지금 우리는 사도들의 무엇을 본받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투신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사도는 스승의 마지막 유언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마태 28,18-20 참고)는 말씀을 일생을 바쳐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를 통해 터키와 유럽으로 퍼져 갔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거쳐 1784년에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소중한 신앙의 불꽃을 받아들인 선조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역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의 불꽃을 지키고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의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지내면서 그분들의 무엇을 본받아 실천해야 할지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유산은 미사 때마다 확인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제들이 매 미사 때마다 신자들을 향해 외치고 있지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도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고 파견된 여러분은 베드로 바오로 사도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한 번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clean up), 잘 입고 다니고(dress up),
각종 모임이나 결혼식 또는 문상에 잘 찾아다니고(show up), 마음의 문을 열고(open up),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listen up), 가급적 말은 삼가야 한다(shut up). 또 노욕을 부리지 말며 웬만한 것은 포기하고(give up), 기분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cheer up), 돈 내는 것을 즐기고(pay up),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health up)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크고 농익어야 합니다.
작고 옹졸한 마음가짐보다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크고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하고, 내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과 표정을 살피며 뒤를 돌보는,
여유롭고 멋진 사람으로 나이들고 싶습니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주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세번)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 축성식이 있을 예정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오늘** 교육관에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안내를 맡아 수고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내는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1. 주보 및 공지 사항 전달
2. 새로오신 교우 또는 방문자 확인후 신상 파악
3. 미사진행 도우미(착석 안내, 성체진행보조등)
그리고 밝은 미소로 교우 맞이하기
7월 부터는 다시 1구역이 시작합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 **친교식사 안내**

오늘 미사후부터 라이프센타에서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만나는 음식을 드시면서 담소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뒷정리 잘하는 한인 공돌체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PS: 지난 교육관 축성식때 수고해주신 성모회원, 관리부장님 그리고 행사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육관 비품구입 위해 카나디안타이어 머니를 모금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시간에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 : $16.10)

◉ 해밀턴 본당이 주최한 온타리오 5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약 166명의 교우들이 참가 해주셨고 음지에서 원화한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본당이 전체 1등을 했고요 서부공소의 윤명희 자매님이 여자부 1등,윤명원 형제가 남자부 2등을 했습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주간 전례**

▶7월 1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13주간화요일
▶7월 3일(목) 낮 12시, 성 토마스 사도축일
▶7월 4일(금) 오후 8시, 연중 제 13주간금요일
▶7월 5일(토)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성시간**

7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미사와 함께 성시간

◉**성모신심미사**

7월 5일 토요일 성모신심미사가 있습니다.

◉**세계 성체대회 한국대표단 방문**

지난 화요일에는 퀘백 세계 성체대회 한국대표단이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와 식사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여주신 본당사목위원들을 비롯한 성모회, 성가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 냄새가 그리운 날은

꽃마다 향기가 있듯 사람도 향기가 있지
어떤이는 낙엽타는 냄새가 나고.
어떤이는 누룽지의 구수함이 배여 있고
어떤이는 너그러운 웃음이 배여 있지
스쳐 지나쳐도 꽃향기가 배인 사람.
쳐다만 봐도 호수가 느끼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남같지 않은 사람
내 맘까지 차분하게 평화를 주는 사람
우연한 손내밈에 손잡을 수도 있고.
손내밀며 악수해도 피하고만 싶은 사람
몇줄의 글만으로 상쾌함이 전해지고
한마디 말 만으로 편안함을 전해준다.
살면서 문득문득 사람냄새가 그리운 날.
바둥바둥 세상살이 그냥그냥 서러운 날
사람냄새 그리워져 군중속에 끼어본다.

사과향에... 국화향에,, 산뜻한 오렌지향에
사람들은 좋은 향에 세상은 활기차다.
군중속의 고독인가 나의 향은 어디갔나?
소박한 일상속의 솔직한 내모습은.
도로옆에 먼지앉은 볼품없는 꽃되었나.
먼지묻은 내 향기는 비가와서 씻어주면
환한 웃음 지으며 다시 나를 찾으려나
다소곳이 미소띤 채 그냥그냥 살고픈 데.
소박한 들꽃내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냥그냥 사람냄새 내 향이면 좋겠는데.
이제와서 돌아본 듯 바람앞에 부끄럽네.
뒹구는 낙엽조차 제 향기 자랑하네.

2008-26 2008. 6. 29.

성베드로와성바오로사제대축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미 사 전 례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전례부

화 답 송 주님께서는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도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91) 사도 성베드로와 바오로
봉 헌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 체 (501) 받으소서 우리마음
퇴 장 (437)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독 서

6 월 15일	이 민	이활란
6 월 22일	이상재	이향숙
6 월 29일	장명길	장용경

봉 헌

6 월 15일	박용대	박명옥
6 월 22일	이 민	이활란
6 월 29일	이상재	이향숙

복 사

6 월 29일	박규환	이헌재
7 월 6일	류지홍	류지헌
7 월 13일	구한힘	이수민

2008 년 6월 15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935.00
성전건립:	$ 40.00
감사헌금:	$ 100.00
Total :	$ 1115.00